

미식축구를 세 경기 연달아 보는 사람은
누구든 뇌사 판정을 받아야 한다.

에르마 봄벵



미식축구를 세 경기 연달아 보는 사람은
누구든 뇌사 판정을 받아야 한다.

미식축구를 세 경기 연달아 보는 사람은
누구든 뇌사 판정을 받아야 한다.

미식축구를 세 경기 연달아 보는 사람은
누구든 뇌사 판정을 받아야 한다.

미식축구를 세 경기 연달아 보는 사람은
누구든 뇌사 판정을 받아야 한다.